

# 변용된 자의식 아닌 ‘사실적 삶의 지표’

대상 인물의 객관화 상실, ‘평전의 치명적 약점’  
철저한 취재 · 출판 공력의 합작 바람직

글\_김영현 실천문학사 대표

《체게바라 평전》의 폭발적 인기로 힘입어 서점에서는 평전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현격히 높아졌다. 더구나 문학시장이 위축되면서 뚜렷한 선도(先導) 장르를 발견할 수 없었던 출판계에서는 평전 출간이 하나의 탈출구로 여겨질 만하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보다 1990년대 이후 자의식 과잉의 문학에 식상해 있던 독자들에게 사실적인 삶의 지표를 보여주는 평전이 가진 매력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평전은 위인전이 아니다. 말 그대로 저자의 입장과 눈으로 대상이 되는 인물의 삶과 생각을 평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전에서는 저자의 눈높이와 사상이 매우 중요시된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객관적 사실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인물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예를 들어 임어당이 쓴 《소동과 평전》 같은 경우가 하나의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출판편집자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 ‘어떤 인물을 평전 출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가 최우선 과제다. 이 경우 대체로 국내인물과 국외인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국내물의 경우는 특별히 연구한 저자의 작업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다시 나누어진다.

먼저 국외인물의 경우를 보자면, 편집자의 철학과 방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기라성 같은 인물 중 어떤 인물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천문학의 ‘역사인물찾기’ 시리즈의 경우는 《체게바라 평전》이 성공하기 전에 이미 《닥터 노먼 베쑨》 《케테 콜비츠》 《뇌봉》 《랭스턴 휴즈》 《스콧 니얼링》 등 비교적 덜 알려진 인물들을 찾아내 출간하였는데, 이 인물들은

휴머니즘에 뿌리를 두고 자신의 철학을 철저히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실천문학 평전의 특징은 1980년대라는 열정의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도 계속 남아 있던 가치있는 삶에 대한 물음에 나름대로 답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물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 우선 평전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저자와 출판사의 투자와 노고가 여간 아니기 때문이다. 출판사는 기획의도에 부합하는 인물을 찾아야 할 뿐 아니라 거기에 적합한 저자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인물찾기’ 시리즈 중 《몽양 여운형》 《김수영 평전》 《문익환 평전》 《약산 김원봉 평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몽양 평전은 몽양 시절 기자 생활을 했고, 비서를 지낸 바 있는 시인 이기형 선생이 맡아서 생생한 기억력으로 복원하여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김원봉 평전은 소설가 이원규 선생이 거의 미치다시피 10여 년 조선 의용군의 흔적을 따라 중국을 돌아다닌 결과물이다. 대체로 이런 경우는 출판사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오로지 저자의 열정에 힘입어 가능한 것이다.

평전 출간에 있어 주의할 점은 평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평전’ 이 지닌 주관성 때문에 흔히 이 점을 간과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평전 서술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평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재와 현지 방문이라는 작가의 노고와 출판사의 지원이 얼마나 많이 요구되는지 모른다. ■